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http://kostat.go.kr

보도자료	2010. 5. 20(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0. 5. 19(수) 10: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 이호섭 (042.481.2233) 사무관 : 서경숙 (042.481.2272)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동 자료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에서 부부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부문별로 정리한 것임

*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 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매년 5월 21일)로, 금년은 제3회 부부의 날임

** 사회조사는 총 10개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8년과 '09년도가 분야별 최근 자료임

· 2008년 조사 분야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 2009년 조사 분야 :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 금번에는 사회조사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남편과 부인)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음

차 례

□ 요 약 ····· 1
□ 2009년 우리나라 부부 탐구생활 ····· 2

Ⅰ. 인 구 ····· 4

1. 혼 인 ····· 4
2. 출 산 ····· 5
3.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6
4. 남·여별 기대여명 ····· 6
5. 이 혼 ····· 7

Ⅱ. 가족·소득 ····· 9

1. 가사분담 ····· 9
2. 가족관계 만족도 ····· 10
3.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 11
4. 가정 일에 대한 의사 결정 ····· 12
5. 부모의 자녀학교 운영 참여도 ····· 12
6.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보기 ····· 13
7. 맞벌이부부의 생활시간 ····· 14
8. 맞벌이 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15

Ⅲ. 복지·문화와 여가 ····· 16

1. 노후준비방법 ····· 16
2.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 17
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18
4. 해외여행 ····· 18
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19

요 약

□ ‘08년 40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앞으로 37.9년(77.9세까지), 여자는 44.4년(84.4세까지)을 더 살아 여자가 6.4년을 길게 생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남편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2.7%)’인 반면, 부인은 ‘예금・적금(31.3%)’과 ‘사적연금(25.6%)’임

□ 결혼한 남자의 10명 중 8명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10명 중 6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으로 남편은 ‘TV 및 비디오(DVD 포함) 시청(34.6%)’을, 부인은 ‘가사일(31.9%)을 주로 함

√ 맞벌이부부 중 자녀 ‘아플 때 돌봐주기’, ‘공부 돌봐주기’는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부인이 주로 담당

□ 남편의 경우 여성 취업에 대해서 ‘06년에는 65.3%가 긍정적이었으나, ’09년에는 81.5%로 늘어나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줌

□ ‘09년 맞벌이가구는 비맞벌이가구보다 소비지출 중 교육비, 교통비, 식사비의 비중이 높았으며,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은 비맞벌이가구보다 1.6배* 높았음

* 월평균 근로소득(‘09) : 맞벌이가구(2,940천원) 비맞벌이가구(1,860천원)

□ 동거기간별 이혼건수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쌍이 이혼한 비율은 ‘99년에는 13.5%로 가장 낮았으나, ’09년은 22.8%로 동거기간 ‘0~4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여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를 보여줌

- ‘09년 이혼사유는 ’성격차이(46.6%)‘, ’경제문제(14.4%)‘ 등의 순임

【2009년 우리나라 부부 탐구생활】

연령대별 주요 특징

30대 이하	● **(주말·휴일의 여가활동은 가족과)**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는 30대 이하(90.5%)*가 가장 높음 * 부부 전체 : 78.0%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이 가장 높아)** **영화,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율은 30대 이하가 71.2%*** (전체 50.5%)로 **가장 높음** * 30대 이하(71.2%) > 40대(59.0%) > 50대(39.9%) > 60대 이상(17.7%) ● **(맞벌이·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지원 절실)**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뽑은 30대 이하 비중은 42.6%(전체 25.0%)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음 * 30대 이하(42.6%) > 40대(23.7%) > 50대(17.1%) > 60대 이상(9.2%)
40대	● **(맞벌이 비율 최고)**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다는 부부가구(맞벌이)의 경우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43.1%, 30대 이하 38.9%** 순임 ●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40대로 **100명 중 20명**(19.9%) * '09년 맞벌이를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40대 비중은 9.9% - 40대(9.9%) > 50대(6.5%) > 30대 이하(6.1%) > 60대 이상(2.2%) ● **(골프장을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 **레저시설 중 '골프장'을** 가장 선호하는 연령은 40대로 100명 중 8명(7.9%*)이 이용 (50대는 100명 중 7명, 30대 이하는 3명 이용) * 40대의 레저시설 이용 : 관광명소(50.0%) > 온천장(27.0%), 해수욕장(27.0%) > 산림욕장(23.2%) > 놀이공원(19.3%) >수영장(16.0%) > 스키장(8.2%) > 골프장(7.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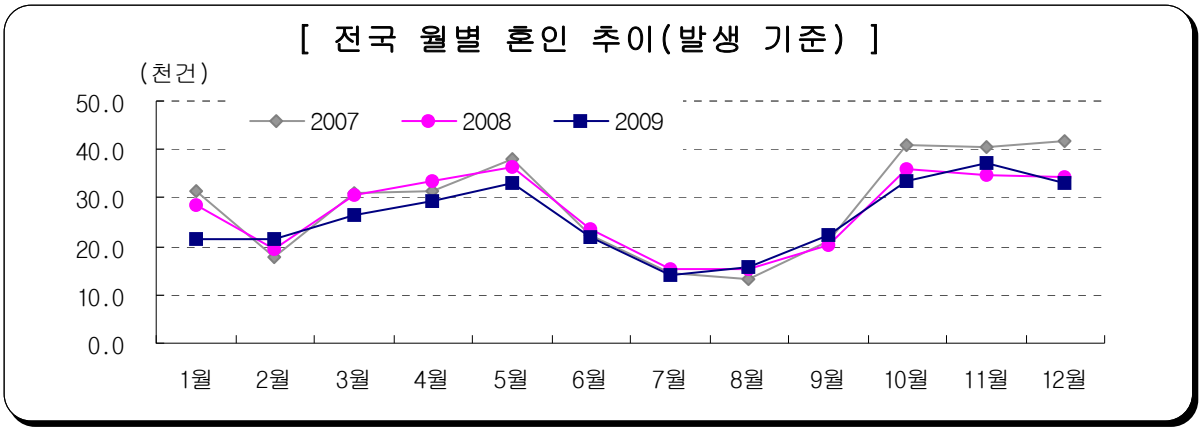
50대	●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가장 많아)** 지난 1년 동안 50대의 해외여행자는 100명 중 18명(17.8%)으로 가장 높았음 * 50대의 해외여행 목적 : **관광**(79.7%) > **업무**(18.7%) > **가사**(11.7%) ** 50대(17.8%) >30대 이하(15.3%) >40대(14.9%) >60대 이상(11.9%) ● **(주말·휴일에 다른 연령대 보다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주말·휴일의 주된 여가활용 방법은 TV 및 비디오시청(58.4%), 휴식(44.3%), 가사일(36.2%), 사교 관련일(20.0%), **종교 활동(18.3%)*** 순임 * 주말·휴일 여가활용 방법으로 종교활동 참여 비중(복수응답) - 50대(18.3%) > 40대(17.6%) >60대 이상(15.8%) >30대 이하(13.4%) ● **(향후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용은 여행)**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50대의 경우 **여행**(49.4%)과 **스포츠 활동**(7.3%)임
60대 이상	● **(생활비 마련은 주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 60세 이상 유배우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74.1%**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20.7%, 「정부 및 사회단체」5.1%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직접 조달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유배우 노인 비중: ('09) 19.9% ● **(100명 중 28명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60세 이상 유배우 노인 중 28.3%가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며,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31.2%)」하거나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26.0%)」임 *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71.7%)의 경우, 그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3.1%,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26.9%, 「자녀의 직장·학업」19.6% 순임 ●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60세 이상 유배우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41.8%)」이 가장 많으며, 「**외로움·소외감**[('07) 1.5%→('09) 1.8%]」, 「**가족으로부터 푸대접**(0.2%)」도 일부 있었음

☞ 관련 통계표(2009년)는 p.20 참조

Ⅰ. 인 구

1. 혼 인

□ ‘09년 전국의 월별 혼인건수를 보면, **11월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은 10월임



< 혼인[1]건수 >

(단위: 천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31.5	17.6	31.1	31.3	37.9	22.5	14.3	13.2	21.1	40.8	40.5	41.8	343.6
2008	28.6	19.3	30.4	33.5	36.5	23.4	15.3	15.3	20.1	36.1	34.8	34.4	327.7
2009	21.5	21.6	26.4	29.4	33.0	21.7	14.0	15.7	22.3	33.6	37.1	33.2	309.6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각년도
주 : 1) 혼인 발생월별 기준임

□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져,** 남자의 경우 10년 전(‘99년) 29.1세에서 ’09년 31.6세로 2.5세가 늘어났고, 여자는 ‘99년 26.3세에서 ’09년 28.7세로 2.4세가 늘어남

< 평균 초혼연령 >

(단위: 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자	29.1	29.3	29.6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여자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각년도

2. 출 산

□ 2009년 총 출생아 수는 44만 5천명으로 전년(46만 6천명)보다 2만 1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출산은 연 중 1월이 가장 많고,** 다음은 3월, 9월, 10월임

< 출생건수 >

(단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8	**46.7**	39.5	41.3	38.8	37.6	35.0	38.0	37.8	40.0	39.9	36.5	34.7	466
2009p	**44.2**	36.7	39.9	37.5	35.9	34.1	35.8	36.2	38.2	37.8	35.3	33.6	445

자료 : 통계청,「월간 인구동향(2010. 4.)」

□ 2009년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 당 명)은 **30~34세가 101.2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0세로 계속 늦어지고 있음**

-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0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임

<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연령별출산율	20~24세	43.3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2
	25~29세	147.2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7
	30~34세	72.3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1.2**
	35~39세	15.3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4**
모(母)의평균 출산연령		28.68	29.02	29.26	29.49	29.71	29.98	30.22	30.43	30.58	30.79	**3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 2009년 **첫째아를 출산하는 비율**은 **'동거 후 2년 이내'**가 72.4%로 가장 높기는 하나, 10년 전(79.9%)과 비교하면 7.5%p 감소

< 동거기간별 첫째 아 출산 구성비 >

(단위 : %)

	계	2년 미만	2~3년	4~5년	6~9년	10년 이상
1999	100.0	79.9	15.1	2.9	1.6	0.5
2009p	100.0	72.4	19.6	4.7	2.6	0.6

자료 :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3.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2009년 20~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26%이며, '91년의 54%를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임

< 유배우[1]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단위: %)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54	49	44	39	40	34	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각년도
주 : 1) 20~44세의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조사

4. 남·여별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 2008년 현재 **40세 남자는 앞으로 37.9년, 여자는 44.4년을 더 살 것으로 전망되어 여자가 6.4년을 길게 생존**

- 2008년 생명표상 특정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보면
  - · **30세** 남자는 47.5년, 여자 54.1년으로 **여자가 6.6년 더 살고,**
  - · **50세** 남자는 28.9년, 여자 34.8년으로 **여자가 5.9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남

<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1] (2008) >

(단위: 년)

2008	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
전 체	80.08	50.95	41.34	32.08	23.32	15.25	8.69	4.56	2.63
남 자	76.54	47.48	37.93	28.89	20.53	13.03	7.26	3.87	2.35
여 자	83.29	54.06	44.37	34.82	25.52	16.72	9.35	4.68	2.52
(여자-남자)	6.75	6.58	6.44	5.93	4.99	3.69	2.09	0.81	0.17

자료 : 통계청, 「2008년 생명표」
주 : 1) 정확한 연령 x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출생아(0세)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함)

5. 이 혼

□ 2009년 총 이혼건수는 124천건이며,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46.6%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제문제(14.4%)'임(기타 제외)

< 이혼사유 >

(단위 : 천건, %)

	이혼 건수	계	배우자 부 정	정신적 육체적 학 대	가족간 불 화	경 제 문 제	성 격 차 이	건 강 문 제	기타 (미상)
2004	138.9	100.0	7.0	4.2	10.0	14.7	49.5	0.6	13.9
2007	124.1	100.0	7.8	4.8	8.0	13.7	46.9	0.7	18.0
2008	116.5	100.0	8.1	5.0	7.7	14.2	47.8	0.6	16.5
2009	124.0	100.0	8.3	5.0	7.4	14.4	46.6	0.6	17.6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각년도

□ 동거기간별 이혼건수를 보면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한편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쌍**은 '99년에는 13.5%로 가장 낮았으나, '09년은 22.8%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

(단위: %,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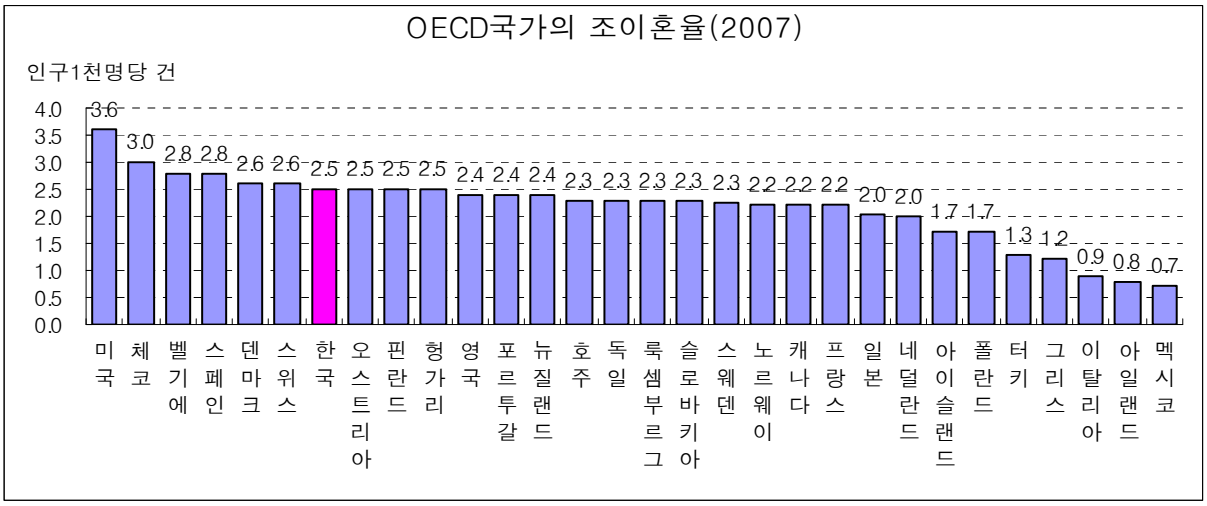
연도	계[1]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이혼건수
1999	100.0	29.2	22.8	18.9	15.6	13.5	117.4
2000	100.0	29.3	22.3	18.7	15.4	14.2	119.5
2005	100.0	25.9	22.3	18.4	14.8	18.6	128.0
2006	100.0	26.5	21.9	18.0	14.5	19.1	124.5
2007	100.0	27.1	20.5	17.5	14.7	20.1	124.1
2008	100.0	28.4	18.6	15.7	14.1	23.1	116.5
2009	100.0	27.2	19.1	16.1	14.8	22.8	124.0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각년도
주 : 1) 미상포함

※ OECD 국가의 조(粗)이혼율[1)](Crude Divorce Rate)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미국	4	4	3.9	3.8	3.7	3.6	3.7	3.6	-	
체코	2.9	3.1	3.1	3.8	3.2	3.1	3.1	3.0	-	
벨기에	2.63	2.85	2.96	3.02	3.01	2.94	2.8	2.8	3.3p	
스페인	0.97	0.96	1.01	1.08	1.19	1.68	-	2.8	2.4	
덴마크	2.69	2.72	2.85	2.93	2.92	2.82	2.6	2.6	2.7	
스위스	1.5	2.2	2.2	2.3	2.4	2.9	2.8	2.6	2.6p	
오스트리아	2.44	2.56	2.46	2.35	2.4	2.36	2.5	2.5	2.4	
핀란드	2.7	2.6	2.6	2.6	2.5	2.6	2.5	2.5	2.5	
헝가리	2.39	2.4	2.5	2.5	2.4	2.5	2.5	2.5	2.5p	
영국	2.62	2.65	2.71	2.8	2.8	2.6	2.4	2.4	-	
포르투갈	1.87	1.83	2.7	2.19	2.22	2.17	2.3	2.4	-	
뉴질랜드	2.51	2.5	2.61	2.62	2.61	2.43	2.4	2.4		
호주	2.6	2.9	2.7	2.7	2.6	2.6	2.5	2.3	2.2	
독일	2.4	2.4	2.5	2.6	2.6	2.5	2.3	2.3	2.3	
룩셈부르그	2.36	2.33	2.45	2.28	2.33	2.29	2.5	2.3	2	
슬로바키아	1.72	1.82	2.04	1.99	2.02	2.14	2.36	2.3	2.3	
스웨덴	2.42	2.36	2.39	2.36	2.24	2.21	2.23	2.3	2.31	
노르웨이	2.24	2.28	2.3	2.36	2.41	2.39	2.3	2.2	2.1	
캐나다	2.3	2.3	2.2	2.2	2.2	2.2	-	2.2	-	
프랑스	1.93	1.89	1.94	2.08	2.17	2.49	2.2	2.2	-	
일본	2.1	2.27	2.3	2.25	2.15	2.08	2.04	2.0	1.99	
네덜란드	2.18	2.31	2.05	1.94	1.91	1.95	1.94	2.0	2.0p	
아이슬랜드	1.9	1.9	1.8	1.9	1.9	1.9	1.6	1.7	1.7p	
폴란드	1.1	1.2	1.2	1.3	1.5	1.8	1.9	1.7	1.7	
터키	…	1.35	1.38	1.32	1.28	1.33	1.28	1.3	1.4	
그리스	1.02	1.02	1.01	1.09	1.11	1.22	1.3	1.2	-	
이탈리아	0.66	0.7	0.73	0.76	0.78	0.8	0.8	0.9	0.9p	
아일랜드	0.69	0.74	0.66	0.75	0.83	0.83	0.9	0.8	-	
멕시코	0.52	0.58	0.6	0.63	0.66	0.68	0.7	0.7		

주 : 1)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연앙인구)*1000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Ⅱ. 가족·소득

1. 가사분담

□ 가사분담에 대해 남편의 17.4%, 부인의 28.2%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 **실제로 평소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0쌍 중 1쌍도 되지 않아** 견해와 행동 간에 다소 차이를 보임

- 맞벌이부부도 남편의 11.8%, 부인의 12.0%만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2008) >

(단위 : %)

	계	부인이 주 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 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 담	남편이 주 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 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남 편	100.0	81.1	12.0	69.2	17.4	1.4	1.2	0.2
맞 벌 이	100.0	76.9	9.2	67.7	21.6	1.5	1.3	0.1
비맞벌이	100.0	83.9	13.3	70.5	14.7	1.4	1.2	0.3
부 인	100.0	70.8	3.7	67.1	28.2	1.0	0.8	0.2
맞 벌 이	100.0	63.2	2.5	60.7	35.9	1.0	0.8	0.1
비맞벌이	100.0	75.6	4.4	71.3	23.3	1.1	0.9	0.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1]								
남 편	100.0	89.4	33.4	56.0	8.7	1.9	1.4	0.4
맞 벌 이	100.0	86.3	26.4	60.0	11.8	1.9	1.7	0.2
비맞벌이	100.0	91.3	37.8	53.6	6.8	1.8	1.3	0.6
부 인	100.0	89.5	35.7	53.8	9.0	1.5	1.2	0.3
맞 벌 이	100.0	86.3	28.9	57.4	12.0	1.6	1.4	0.3
비맞벌이	100.0	91.4	39.8	51.5	7.2	1.5	1.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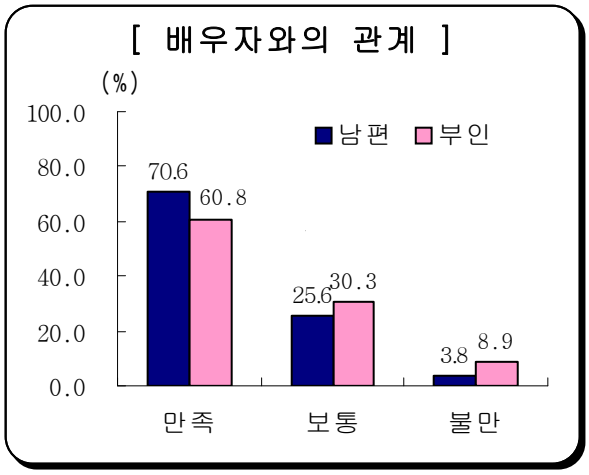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8
주 : 1)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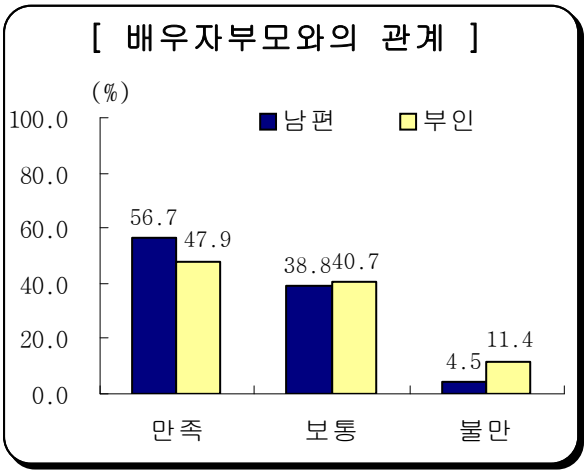
2. 가족관계 만족도

□ 남편과 부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남편은 70.6%가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인은 60.8%만이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응답함

-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

□ 또한 '배우자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은 56.7%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부인의 경우 **시부모님에 대한 만족 비율(47.9%)은 50%를 하회**





< 가족관계 만족도 (2008) >

(단위 : %)

	계	남 편			부 인		
		만 족	보 통	불 만	만 족	보 통	·불 만
배우자와의 관계	100.0	70.6	25.6	3.8	60.8	30.3	8.9
30대 이하	100.0	81.3	15.9	2.9	71.4	22.0	6.6
40 ~ 49세	100.0	72.3	23.5	4.3	59.1	30.9	10.0
50 ~ 59세	100.0	64.5	31.6	3.8	52.7	37.0	10.3
60대 이상	100.0	60.4	35.4	4.2	50.8	39.1	10.1
자녀와의 관계	100.0	75.2	22.0	2.8	75.0	22.1	2.8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64.6	31.2	4.2	64.0	32.1	3.9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56.7	38.8	4.5	47.9	40.7	11.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8

3.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 이미 **결혼한 남자의 10명 중 8명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여자의 경우 10명 중 6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임

- 이혼에 대해서도 남편은 71.7%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인은 58.6%만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임

<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2008) >

(단위 : %)

	계	결 혼			이 혼		
		해야한다[1]	해도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2]	해서는 안된다[3]	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 수도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것이 좋다
2008	100.0	72.5	24.2	2.5	65.2	28.2	5.2
남 편	**100.0**	**79.7**	**17.8**	**1.7**	**71.7**	**22.7**	**4.1**
30대 이하	100.0	74.6	22.8	2.2	62.7	31.2	4.4
40~49세	100.0	75.7	21.4	2.1	69.4	24.9	4.4
50~59세	100.0	82.5	15.5	1.3	73.9	19.7	4.7
60대 이상	100.0	89.3	8.6	1.1	84.7	11.2	2.6
부 인	**100.0**	**65.2**	**30.6**	**3.2**	**58.6**	**33.8**	**6.3**
30대 이하	100.0	55.3	40.3	3.4	46.5	45.2	6.8
40~49세	100.0	60.8	34.7	3.8	54.6	37.2	7.1
50~59세	100.0	75.0	21.6	2.7	68.6	24.3	6.1
60대 이상	100.0	82.7	13.8	2.5	79.7	14.9	4.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8

주 : '잘 모르겠다' 제외

1)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3)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수치임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국제 비교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찬성'*** 비율)

- 스웨덴(15.7%) 스페인(24.8%) 일본(35.6%) 미국(41.0%) 한국(58.5%)

(2)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다(**'찬성'*** 비율)

- 일본(33.8%) 한국(37.2%) 미국(43.0%) 스웨덴(54.5%) 스페인(81.4%)

* 찬성은 '매우찬성+찬성'을 합한 수치임(5점 척도)

(자료) : '03 한국종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 및 '02 국제사회조사**(ISSP)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부문 : '88, '94, '02년도 조사

4. 가정 일에 대한 의사 결정

□ 20~44세의 부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질문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자녀 양육 및 교육', '일상생활비 관리'는 부인이 결정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주택구입 및 이사'나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각각 78.3%, 69.9%로 가장 높았음

< 유배우 여성(20~44세)의 가정 일에 대한 의사 결정 (2009) >

(단위 : %)

	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각자 다른사람
자녀양육	100.0	19.5	43.5	34.3	1.4	0.4	0.9
자녀교육	100.0	16.1	40.9	40.1	2.1	0.4	0.3
일상생활비 관리	100.0	19.1	40.6	35.5	3.3	1.3	0.2
주택구입 및 이사	100.0	3.0	9.3	78.3	7.7	1.5	0.2
투자 및 재산관리	100.0	5.0	10.5	69.9	11.5	2.8	0.5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5. 부모의 자녀학교 운영 참여도

□ 2008년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30세 이상 학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도를 보면, 어머니의 참여율(참여함+보통)이 53.9%로 아버지의 참여율(32.7%)보다 높았음

<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2008) >

(단위 : %)

	계	참여함	활발히	어느정도	보통	참여하지 않음	별로	전혀
2008	100.0	21.8	4.2	17.6	21.3	56.9	34.3	22.6
남 편	100.0	14.0	2.8	11.2	18.7	67.3	37.3	30.0
부 인	100.0	29.8	5.7	24.1	24.1	46.1	31.2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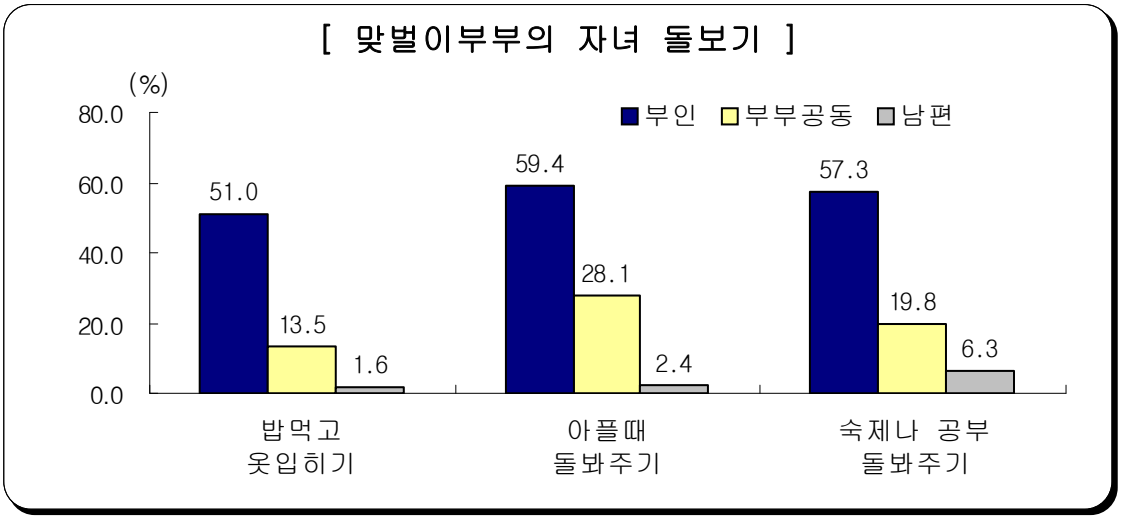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8
주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30세이상 학부모

6.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보기

□ 2009년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를 보면, '밥먹고 옷입히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의 경우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는 각각 32.1%, 28.1%로 부부 공동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남편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비중은 1.6~7.4%*에 그침**

* 남편이 '전적으로' 하거나 '대체로' 하는 경우를 합한 수치



<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2009) >

(단위 : %)

	계	부 인[1)]	부부공동	남 편[1)]	다른사람 도 움	자 녀 스스로
밥 먹고 옷 입히는 것	100.0	**51.0**	13.5	1.6	7.2	26.7
함께 놀아주기	100.0	33.7	32.1	7.4	8.2	18.5
아플 때 돌봐주기	100.0	**59.4**	28.1	2.4	6.7	3.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00.0	**57.3**	19.8	6.3	5.9	10.7
유치원, 학교 등 등하교	100.0	44.5	17.7	5.0	7.3	25.5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주 : 1) '전적으로'하거나 '대체로' 하는 비율을 합한 수치임

7. 맞벌이부부의 생활시간

□ 2009년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간 요일평균 여가생활시간**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부인은 3시간 25분으로 비맞벌이가구의 부인(5시간 37분)보다 2시간 12분이 적은 반면

- **남편의 여가생활시간은 맞벌이(4시간 14분)와 비맞벌이(4시간 17분) 간에 3분** 정도 차이가 나타남

□ 수면시간과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은 거의 차이가 없음**

- 맞벌이가구 부인은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에 요일평균 3시간 20분*을 보내는 한편, 남편은 37분에 불과함

* 비맞벌이가구 부인은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가 6시간 18분으로 맞벌이가구 부인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

<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요일평균 사용시간 (2009) >

(시간 : 분)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부 인	남편	부 인	남편
□ 필수생활시간	10:26	10:40	10:40	10:46
수면	7:26	7:37	7:48	7:41
식사 및 간식	1:44	1:51	1:46	1:54
기타 개인유지[1]	1:16	1:12	1:06	1:12
□ 의무생활시간	10:09	9:06	7:43	8:56
일(수입노동)	5:06	6:20	0:02	6:08
가정관리[2]	2:38	0:24	4:11	0:19
가족보살피기	0:42	0:13	2:07	0:20
학습	0:01	0:01	0:02	0:01
이동	1:42	2:09	1:21	2:09
□ 여가생활시간	3:25	4:14	5:37	4:17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9

주 : 맞벌이가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 중 둘 다 취업한 가구이며, 비맞벌이가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임

1)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2)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 집관리 등

8. 맞벌이 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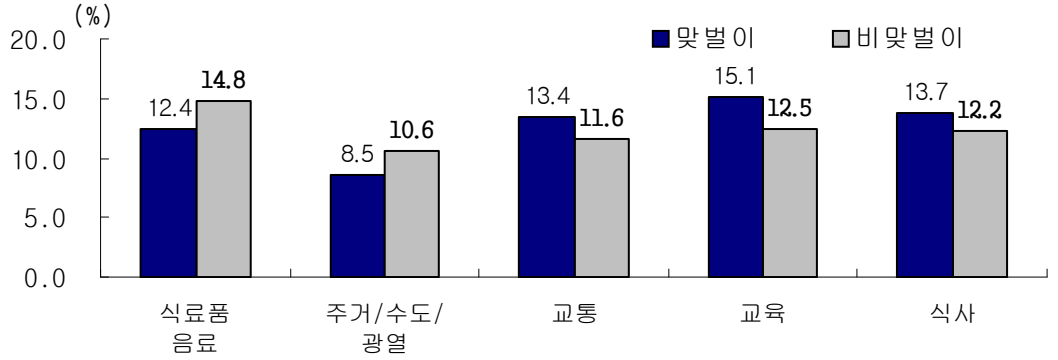
□ 2009년 **비맞벌이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60천원으로 맞벌이가구 (2,940천원)의 63.3%** 수준임

□ 총 소비지출 대비 각 품목의 지출 비율을 보면, **맞벌이가구는 교육비가 15.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숙박비(13.9%), 교통비(13.4%)순임

- 반면, 비맞벌이가구는 식료품·음료비(14.8%), 교육비(12.5%), 음식·숙박비(12.4%) 순으로 나타남

- 맞벌이가구의 경우, **비맞벌이가구보다 소비지출 중 교육비, 교통비, 식사비의 비중이 높았음**

[맞벌이여부별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 맞벌이[1]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2009) >

(단위 : 천원, %)

	소득	근로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음료	주거 수도 광열	보건	교통	교육	음식 숙박	식사	통신	의류 신발	기타[2]
맞벌이	4,263	2,940	3,222	2,460 (100.0)	(12.4)	(8.5)	(5.5)	(13.4)	(15.1)	(13.9)	(13.7)	(6.3)	(6.3)	(18.6)
비맞벌이	2,990	1,860	2,540	1,988 (100.0)	(14.8)	(10.6)	(7.3)	(11.6)	(12.5)	(12.4)	(12.2)	(6.1)	(6.0)	(18.6)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2009

주 : 평균가구원수 : 맞벌이가구(3.6명) 비맞벌이가구(3.2명)

1) 동일한 가구에 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한 경우임

2)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기타상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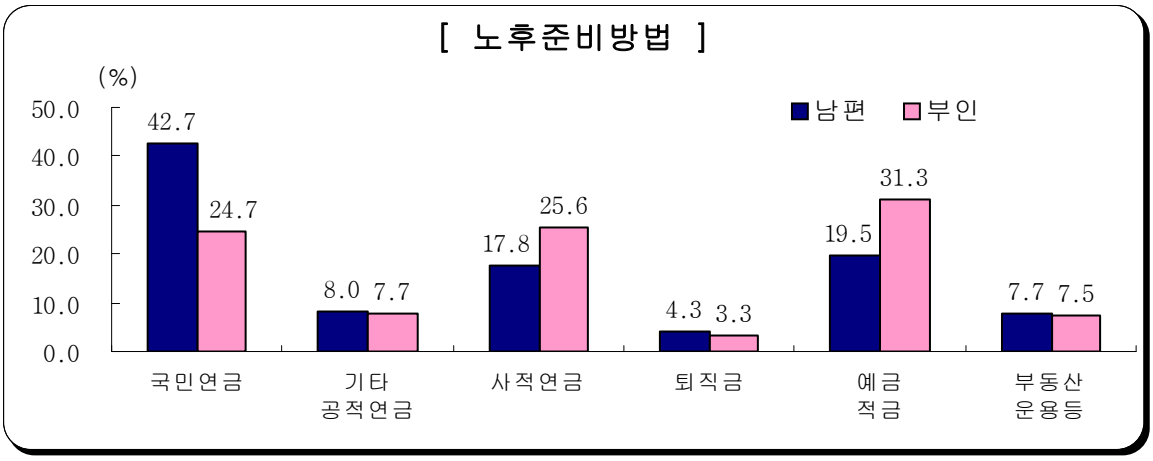
Ⅲ. 복지·문화와 여가

1. 노후준비 방법

□ 2009년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남편은 81.6%이며, 부인은 70.2%임

-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남편의 경우 '국민연금(42.7%)'**과 '예금·적금(19.5%)' 이었으나, **부인은 '예금·적금(31.3%)'**과 '사적연금(25.6%)'으로 서로 간에 차이를 보임

- '05년과 비교해 보면, 남편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부인은 '예금·적금'이나 '사적연금'을 준비



< 노후준비방법 >

(단위 : %)

	계	준비하고 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1]
<2005>										
남 편	100.0	**69.8**	100.0	**36.4**	9.9	19.9	4.5	**21.6**	6.8	0.8
부 인	100.0	**65.2**	100.0	**30.1**	9.3	**23.9**	3.6	**25.8**	6.4	0.8
<2009>										
남 편	100.0	**81.6**	100.0	**42.7**	8.0	17.8	4.3	**19.5**	6.6	1.1
부 인	100.0	**70.2**	100.0	24.7	7.7	**25.6**	3.3	**31.3**	6.4	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주식, 채권 등 포함

2.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으로 **남편은 'TV 및 비디오 시청(34.6%)'**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은 '휴식(17.7%)', '스포츠활동(9.6%)'임

- 반면, **부인은 '가사일(31.9%)',** 'TV 및 비디오(DVD 포함) 시청(27.1%)', '종교활동(14.1%)' 순으로 나타남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2009) >

(단위 : %)

	계	TV 및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등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기타[1]
2009	100.0	30.9	6.6	1.9	6.0	2.2	1.1	11.2	18.8	13.5	5.7	2.1
남 편	100.0	**34.6**	8.0	2.1	**9.6**	3.4	1.5	8.3	6.1	**17.7**	6.6	2.1
부 인	100.0	**27.1**	5.2	1.7	2.3	1.0	0.7	**14.1**	**31.9**	9.2	4.9	2.0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9
주 : 1) 창작적 취미, 봉사활동 포함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가족'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 **'혼자서' 보내는 비중이 높아짐**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2009) >

(단위 : %)

	계	가족	친구	동호회 (종교단체 등)	혼자서	기 타
남 편	100.0	74.9	7.5	6.7	10.7	0.2
30대 이하	100.0	87.9	3.6	4.0	4.4	0.1
40～49세	100.0	74.2	7.1	9.2	9.2	0.3
50～59세	100.0	66.5	10.8	8.2	**14.3**	0.3
60대 이상	100.0	68.6	9.5	5.2	**16.7**	0.1
부 인	100.0	81.2	4.5	5.1	9.1	0.1
30대 이하	100.0	92.7	2.4	1.8	3.1	0.0
40～49세	100.0	79.8	4.6	6.2	9.3	0.1
50～59세	100.0	72.2	6.8	7.1	**13.8**	0.0
60대 이상	100.0	72.5	5.9	7.2	**14.3**	0.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9

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비율을 보면 부인이 52.6%로 남편 48.4%보다 높았음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높아짐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2009, 복수응답) >

(단위 : %)

	계	관람함	음악·연주회	연극·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2009	100.0	50.5	11.9	12.2	38.3	15.3	9.5	10.4
남 편	100.0	48.4	9.9	9.2	35.1	14.2	7.8	14.3
부 인	100.0	52.6	14.1	15.3	41.7	16.4	11.2	6.4
[가구소득별]								
100만원미만	100.0	14.4	3.4	2.3	8.4	4.0	1.6	2.2
100~200만원 미만	100.0	36.1	6.2	6.0	25.7	8.6	4.5	6.9
200~300만원 미만	100.0	53.8	9.3	10.0	40.2	15.5	8.2	10.7
300~400만원 미만	100.0	61.3	14.5	15.3	47.7	18.2	10.8	13.7
400~600만원 미만	100.0	70.9	20.6	21.9	56.4	24.2	17.0	15.8
600만원 이상	100.0	77.5	30.2	29.1	62.9	29.4	24.5	14.8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09

4. 해외여행

□ 2009년 기준, 부부 중 지난 1년 동안 해외를 다녀온 비율은 남편의 경우 17.1%로 부인(12.9%)보다 4.2%p 높았으며, 여행목적은 관광이 1순위를 차지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복수응답) >

(단위 : %, 회)

	계	해외여행자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가사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업무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어학[1] 연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2004>										
남 편	100.0	13.8	57.4	1.3	11.8	2.1	44.7	2.5	-	-
부 인	100.0	9.9	78.7	1.3	19.8	1.8	9.3	1.8	-	-
<2009>										
남 편	100.0	17.1	62.7	1.4	11.2	2.2	38.3	2.8	1.3	1.2
부 인	100.0	12.9	83.6	1.3	16.7	1.8	7.4	2.3	0.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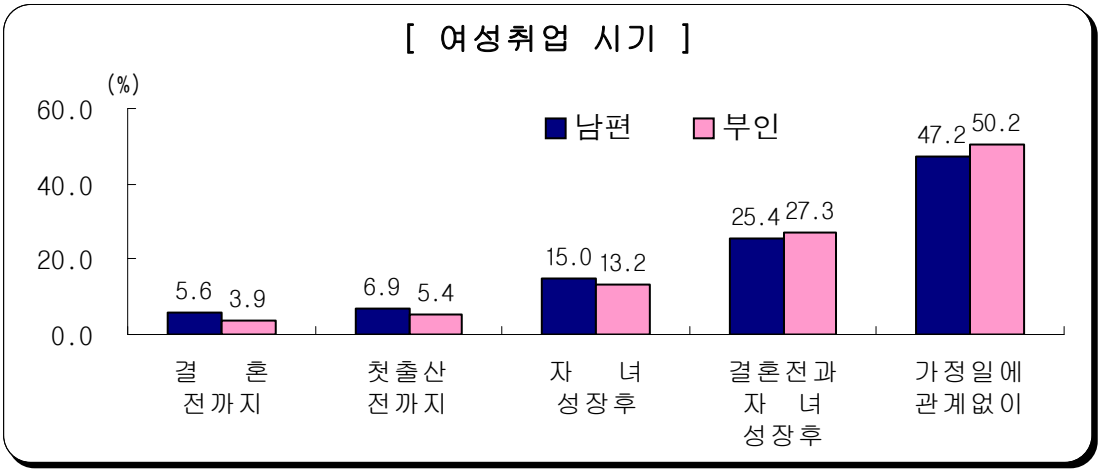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2004년도 '어학연수'는 '업무'에 포함

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여성 취업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는 부인이 86.7%로 남편(81.5%)보다 다소 높았음

- 남편의 경우 여성 취업에 대해서 **'06년에는 65.3%가 긍정적이었으나, '09년에는 81.5%로 늘어나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줌**

- 직업을 가진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결혼한 **부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소계	결혼전까지	첫자녀 출산전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	모르겠다
<2006>										
남 편	100.0	65.3	100.0	5.9	8.8	14.3	27.6	43.3	8.7	5.9
부 인	100.0	73.2	100.0	4.1	6.0	11.9	27.2	50.8	5.5	3.6
<2009>										
남 편	100.0	81.5	100.0	5.6	6.9	15.0	25.4	47.2	12.4	6.1
부 인	100.0	86.7	100.0	3.9	5.4	13.2	27.3	50.2	9.0	4.3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2009년 우리나라 부부* 탐구생활 관련 통계표(자료 : 사회조사)

* 배우자가 있는 사람(남편, 부인)만을 대상으로 집계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

(단위 : %)

	계	가족	친구 (연인포함)	동호회 (종교단체 등)	혼자서	기타
2007	100.0	77.6	6.7	6.0	9.6	0.1
30대 이하	100.0	91.1	3.1	2.8	2.9	0.1
40~49세	100.0	77.6	6.1	7.2	9.1	0.1
50~59세	100.0	67.1	9.7	8.5	14.6	0.1
60대이상	100.0	66.1	10.6	6.6	16.5	0.1
2009	100.0	78.0	6.1	5.9	9.9	0.1
30대 이하	100.0	90.5	2.9	2.8	3.7	0.1
40~49세	100.0	77.0	5.9	7.7	9.3	0.2
50~59세	100.0	69.2	8.9	7.7	14.1	0.2
60대이상	100.0	70.3	7.9	6.0	15.7	0.1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

(단위 : %)

	계	관람함	음 악 ·연주회	연 극 ·무 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2009	100.0	50.5	11.9	12.2	38.3	15.3	9.5	10.4
30대 이하	100.0	71.2	13.3	18.1	56.8	24.0	12.9	13.7
40~49세	100.0	59.0	14.8	13.6	47.2	16.5	11.0	13.2
50~59세	100.0	39.9	12.7	10.0	27.5	10.0	8.1	8.5
60대 이상	100.0	17.7	4.8	3.7	8.7	6.1	3.5	3.3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단위 : %)

	계	노인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맞벌이및 한부모가구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비만 아동 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자립 자금지원 서비스	장애인 재활지원 서비스	장애아 교육 서비스	기타
2009	100.0	46.2	6.3	5.2	25.0	1.2	11.4	3.1	1.1	0.3
30대 이하	100.0	22.9	13.3	3.8	42.6	1.4	12.4	2.1	1.4	0.1
40~49세	100.0	46.9	2.9	6.1	23.7	2.0	13.3	3.6	1.1	0.3
50~59세	100.0	55.7	4.3	5.6	17.1	0.7	11.4	3.8	1.0	0.4
60대이상	100.0	70.2	3.1	5.7	9.2	0.4	7.3	2.9	0.6	0.6

< 맞벌이부부가구 >

(단위 : %)

	부부가구전체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맞벌이	40.1	38.9	48.1	43.1	24.7

< 자원봉사활동참여자 >

(단위 : %)

	부부전체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참여자	15.0	13.8	19.9	16.2	8.2

※ 맞벌이를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40대 비중 : 9.9%

- 30대이하(6.1%), 40대(9.9%), 50대(6.5%), 60대이상(2.2%)

< 레저시설 이용자 >

(단위 : %)

	계	레저시설 이용자	관광 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 욕장	산림 욕장	놀이 공원	수영장[1]	기타
2007	100.0	67.1	48.9	24.2	3.2	5.4	21.3	20.5	23.6	-	0.7
남 편	100.0	66.7	48.9	23.0	5.0	5.8	21.8	20.5	23.1	-	1.0
부 인	100.0	67.6	48.9	25.4	1.5	4.9	20.7	20.5	24.2	-	0.4
30대 이하	100.0	80.2	54.4	27.4	2.5	10.5	35.7	27.5	48.6	-	0.9
40~49세	100.0	66.0	47.9	23.3	5.2	5.5	21.6	21.1	19.9	-	0.7
50~59세	100.0	60.3	47.2	23.2	3.5	1.7	11.3	18.0	7.0	-	0.6
60대이상	100.0	54.1	43.0	21.4	1.0	0.4	6.9	10.3	5.3	-	0.4
2009	100.0	71.4	47.8	28.5	5.1	6.9	24.2	22.1	20.8	15.5	0.6
남 편	100.0	70.9	47.5	26.5	7.7	7.7	24.5	22.1	20.4	14.4	0.8
부 인	100.0	71.9	48.2	30.5	2.5	6.2	23.8	22.1	21.3	16.6	0.4
30대 이하	100.0	84.6	52.2	31.1	3.3	12.5	39.5	28.2	45.4	31.1	0.7
40~49세	100.0	73.8	50.0	27.0	7.9	8.2	27.0	23.2	19.3	16.0	0.6
50~59세	100.0	65.8	47.4	29.2	6.8	2.7	14.1	21.0	5.1	5.3	0.7
60대이상	100.0	53.8	38.3	25.8	1.9	1.3	7.8	12.0	3.3	2.3	0.3

주 : 1) '09년도 신규항목임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복수응답) >

(단위 : %, 회)

	계	해 외 여행자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가사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업무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어학 연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2009	100.0	15.1	71.5	1.3	13.6	2.0	25.3	2.7	1.1	1.3
30대 이하	100.0	15.3	66.5	1.3	10.4	2.1	33.9	2.6	1.9	1.1
40~49세	100.0	14.9	62.7	1.4	16.6	2.2	31.9	2.7	1.5	1.4
50~59세	100.0	17.8	79.7	1.4	11.7	1.9	18.7	3.1	0.5	1.3
60대이상	100.0	11.9	84.2	1.3	17.2	1.6	6.8	2.0	0.1	2.0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복수응답) >

(단위 : %)

	TV 및 비디오 시 청	여행	문화예술 ·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 동	컴퓨터 게 임 등	자 기 계 발	종 교 활 동	가사일	휴 식	사 교 관련일	기타[1]
2009	60.4	14.9	8.0	11.1	8.7	3.0	16.1	39.4	43.8	20.0	5.5
30대이하	60.3	20.2	12.0	8.8	15.4	4.5	13.4	44.9	41.8	21.8	4.6
40~49세	58.4	15.4	9.6	15.4	8.3	3.2	17.6	39.1	45.1	19.8	5.5
50~59세	58.4	14.0	5.6	12.4	5.4	2.3	18.3	36.2	44.3	20.0	6.4
60대이상	66.0	6.9	2.3	6.7	2.8	1.1	15.8	34.8	44.1	17.7	5.9

주 : 1) 창작적 취미, 봉사활동 포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 응답) >

(단위 : %)

	계	TV 및 비디오 시 청	여행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 동	창작적 취미	자 기 계 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휴 식	사 교 관련일	기타[1]
2009	100.0	4.4	48.2	7.4	8.1	4.4	7.2	2.9	4.7	5.6	4.6	2.4
30대이하	100.0	2.1	49.1	10.5	8.8	5.8	11.8	1.4	2.6	4.1	2.1	1.8
40~49세	100.0	2.8	49.0	7.9	11.1	4.6	8.1	3.3	4.7	4.2	2.9	1.3
50~59세	100.0	4.7	49.4	6.2	7.3	4.2	4.5	4.4	5.8	5.8	5.2	2.5
60대이상	100.0	10.1	44.0	3.1	3.6	2.3	2.2	3.0	6.7	10.0	10.3	4.6

주 : 1) 컴퓨터게임·인터넷검색, 가사일 포함

< 60대 이상 부부의 생활비 마련방법 >

(단위 :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소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2007	100.0	76.9	100.0	65.7	11.0	16.7	6.5	20.3	100.0	42.4	57.6	2.6	0.1
2009	100.0	74.1	100.0	57.5	13.1	23.9	5.5	20.7	100.0	36.1	63.9	5.1	0.1

※ 생활비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직접 조달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 : 19.9% ('09)

< 60대 이상 부부의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및 이유 >

(단위 : %)

	계	같이 살고 있음	소계	독립생활 불가능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손자녀양육 및 가사를 돕기위해	모두 독립생활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싶어서	학생 또는 미성년자 녀이므로	기타
2007	100.0	35.3	100.0	18.4	39.1	11.8	22.6	6.3	1.9
2009	100.0	28.3	100.0	20.4	31.2	11.2	26.0	8.8	2.4

	계	같이 살고 있지않음	소계	독립생활 가능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따로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자녀와의 불화	기타
2007	100.0	64.7	100.0	57.1	34.3	57.6	31.2	1.2	1.5
2009	100.0	71.7	100.0	26.9	18.6	33.1	19.6	0.8	1.0

< 60대 이상 부부의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

(단위 : %)

	계	경제적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복지 시설부족	기타
2007	100.0	41.1	4.9	5.3	39.1	1.5	0.2	2.8	0.7	3.3	1.1
2009	100.0	41.8	4.3	6.6	37.2	1.8	0.2	3.0	0.9	2.9	1.2